

법사의 꿈을 키우며 (하)

김한중 (교도소 재소자)

내내 따뜻한 위로 한 마디는 힘든 수감 생활에 든든한 힘이었습니다. '연비 자국을 보면서 이제 진정한 불제자가 되었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보라'는 아내의 말처럼, 부처님 법에 간절하게 의지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금강경>과 <관음경>을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독송했습니다.

그렇게 9년간의 수감생활은 내게 많은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나를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게 한 이상을 버리게 했습니다. '내가 제일이다'라는 오만한 생각, 지독하게 나를 몰아매던 그 이상을 벗어버리고나니, 세상이 달라보였습니다.

<금강경> 2상 '적멸분'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경의 말을 듣고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 우주와 인생의 참다운 모습, 즉 실상의 깨달음에 이른다"고요. 그리고 여래가 옛날 "가리왕에게 몸을 베고 마디마디 사지를 찢겼지만 이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기에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나는 작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인연 따라 태어난 것부터가 인과의 산물이니, 그대로 '고통'이구나. 전생부터 업이 쌓이고 문쳐서 오늘의 내가 되었기에... 그 원인을 알게 되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만약 이를 업이라고 괴로워만 한다면 한없이 괴롭겠지만, 그간 향락주의에 빠져있던 나를 버리는 수행과정으로 마음을 돌리니 현실의 고통은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면 순간순간 자기 자신을 밝음으로 인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 나의 눈가를 순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인과의 법칙도 사무치게 알게 되었습니다. 현실의 내 모습을 보면서 매사 나 자신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는 인과법칙, 세상 느끼게 되면서 어두웠던 나의 삶이

밝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법회를 열어주는 스님들의 인연에 감사했습니다. 어느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아무리 즐겁다 하더라도 거기에 속지 말라"고요. 그 당부의 말씀을 하신 스님은 내게 "사람 되기 어렵고 정법 만나기 어렵고 부처되기 더더욱 어렵다"는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듣는 순간, 꿈을 깨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꿈이 꿈인 줄 모르는 까닭

이 있고, 그런 부처님의 마음이 바로 내 불성에 있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나약한 내 마음과 몸에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죄를 짓고 교도소에서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 앞으로는 부처님처럼 살 거라는 자신감은 힘든 내게 든든한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매번 스스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공부하기 좋은 노른자 위에서 이 주옥보다 아름다운 부처님의 진리를 배우지 못한다면, 어리석음의 꿈에서 영원히 깨어나지 못

경전 읽고 쓰고 외우며 '마음의 자유' 추구 가장 큰 '농사'가 불법 수행이란 믿음 생겨 금강석같은 참 불자로 거듭나리라 다짐

에 나 자신은 어리석음의 꿈에서 허둥지둥했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했습니다. 흐릿하게 남은 내 팔복의 연비자국을 더듬었습니다.

28년 전에 오계를 받을 때 남은 연비자국을, 계를 받으면서 남모르게 또 뜨겁게 가슴으로 흘려내리는 눈물을 다시 흘렸습니다.

"그래, 지금부터 다시 부처님 법에 의지하자. 지난 세월 세웠던 법사가 되겠다는 원을 실현하자." 나는 이후, 육중에서 불교통신대에 입학했고 불교공부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틈틈이 부처님의 경전을 읽고, 쓰며 외고... 몸은 갇혀 있지만, 마음은 온 세상을 자유롭게 누웠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할 줄 알니까? 시방삼세에 부처님이 계시

한다'고, 스스로 화두처럼 놓지 않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이런 마음공부 과정에서 바쁜 외중에도 불구하고 매달 와감로법문을 주시는 일봉 스님과 법사님들은 내 불교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늘 생각했습니다. '부처님 법은 무엇일까?' 불서를 읽으면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불법은 일단 가지 맛이 나는 과일이고, 일단 가지 향이 나는 꽃이다. 우리는 그런 과일 나무를 가꾸는 정원사요. 모든 농사 중에 가장 보람 있는 농사가 바로 불법 수행' 이는 믿음이었습니다.

나의 일상생활이야말로 불법을 닦을 수



그림 · 문병성

있는 연마제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를 지기 수행자라면, 말의 말에 떨어지게 해서 안 되며 입을 열어 법을 이야기한다면, 그 말을 듣는 이에게는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공덕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니까요.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살았었으니 말입니다.

진정한 불자가 되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너를 살리겠다는 그 마음, 그것이 자비의 참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사랑을 가지고 죽네 사네 아던들이지만, 사랑하기 이전에 내 아픔이요, 내 고통이요, 내 자라요 바로 나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안 한다'라는 언어가 불을 수가 없는 그대로가 자비심이라는 것을 항상 가슴 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또 풀 한포기라도 버리지 않는 대비심을 키우면서 내가 예전에 세웠던 법사의 원을 실현하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있습니다.

흙탕물에 빠져 본 사람은 자기가 겪어 보았으니까 다시 빠지지 않고 남도 건질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더욱 분발 정진 수행하여 부끄러움 없

는 불자로 태어나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수익복을 입고 있지만, 이곳도 부처님 수행도량으로 생각하니 주옥보다 더 아름다운 불법을 배우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번의 실수는 병가에 상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무엇을 잘못해서 결과를 따진다고 했을 때, 실패하면 굉장히 망신스럽기도 하지만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

시하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번의 실패는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한 연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행이며 작은 목표이 자라 사람에게 시련한 그늘을 주려던 긴 시간에 허허벌판에서 비바람에 많은 매를 맞으며 성장한 나무는 더욱 튼튼하듯이, 아무리 힘든 수감생활일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단단한 금강석의 참 불자로 거듭 태어나리라 다짐합니다. (끝)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수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술하게 되어 보내드립니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수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인필(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spark@buddhapia.com

기획 PR

佛法天地有廣一切樂

불법이 천지에 널리 있어 일체가 모두 낙이로다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제6세 종정 · 총무원장 · 종회의장 이취임 대법회 성료 2006년 4월 4일 서울 세검정 하림각 대연회장 ... 1000여 사부대중 참여



◇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제6세 일승 종정 큰스님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제6세 종정 총무원장 종회의장 이취임대법회가 2006년 4월 4일 세검정 하림각 대연회에서 각 종단 스님 및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법하게 거행 되었다.

제6세는 종정 일승큰스님 총무원장 우담스님, 종회의장 현공스님으로 앞으로 종단의 수행 및 대내외 모든 행사를 주관하게 된다. 이 자리를 축하해주기 위해 대한불교조계종총연합회 총재 인왕스님 대한불교조계종총의회 회장 지산스님들 각 종단의 총무원장스님 등 약 100여명의 스님이 참석하였다. 한국근본불교조계종은 정법구현(正法具現) 정도수행(正道修行) 종생제도(衆生護渡)의 중

훈(訓誨)아래 종도들의 수행이 이루어지며, 특히 이취임대법회 등 모든 행정이 투명하게 진행됨으로써 단 한차례의 종단 분규가 없는 등 화합 종단의 면모를 여지없이 나타내고 있다.

한국근본불교조계종은 1992년 10월 12일 창종 동기가 된 원찰인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156번지에 소재한 동해사에서 이철에 모셔져 있던 석불이 약 2미터 좌상 석가모니부처님을 양양군 서면 논화리 390번지로 모시는 도중 그곳에 맑은 날임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림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그 현상이 신비하여 군청주재 언론기관원에 일리게 되었고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하게 되었다.

이일이 KBS, MBC 텔레비전방송과 일간지 및 주간지 등에 보도되면서 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알려지면서 이철의 창건주인 의륜스님은 불교방송, KBS부산방송국 등 대구 만산사에서 무려 1백오십회의 동해사 법비(부처님의말씀) 사진전 및 사리진전 법회를 개최하면서 태국 왓벤사 사원의 협력으로 남방불교를 유학하면서 한국에는 북방불교 일색인 불교를 남방불교 도입을 결정하면서 창을 발원하고 뜻있는 스님들이 모여 한국근본불교실현 협의회로 출범하게 되었다. 이후 이러한 수행에 동참하는 스님 및 사부대중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한국근본불교조계종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날 제6세 일승종정큰스님은 "불법이 천지에 널리 있어 일체가 모두 낙이로다(佛法天地有廣一切樂)"라고 법어를 내려 참석한 사부대중에게 불법의 소중함을 설법하였다. 사찰인의 불교만이 되어서도 안되고, 신도회내의 불교만이 아닌, 세계로 나가는 넓은 열린 불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제6세 종정 · 총무원장 · 종회의장 이취임 대법회에 참석한 사부대중

상대를 받드는 수행을 해야하며 이러한 수행이야말로 최고의 무주상 보시인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중생이 있는 모든곳, 어디에 있느냐 어디를 가나 중생이 사는 생활속에 항상 불법이 있으니 너무 즐겁고 하루 하루가 수행일 수 밖에 없다며 생활속의 불교를 말하였다.

일승종정 큰스님은 1948년 백양사 종암스님을 은사로 운암스님 계사로 일승스님을 법사로 출가한 이래 유치 보림사에서 6년거 이래 지리산 법계사에서 8년거를 성만했다.

총무원장 우담스님은 취임사에서 세상은 올라가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오며 가라가지 않아도 스스로 지나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요, 순리이고, 큰 불교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높여주고,

초고속 변화속에 물질이 세상을 지배한다하여도 변하지 않는 것이있으니, 이것이 천리요, 도리인 것이라며 근본불교조계종의 변하지 않는 원칙을 강조 하였다. 12년 창종이래 단 한번의 다툼이나 분쟁이 없는 평화로움속에서 수차례의 종권이양을 실천한 종단인 만큼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종단이라고 말했다.



◇ 총무원장 우담스님(중앙),종암총회의장 현공스님(좌측),장로원장 의륜스님(우측)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신도는 "불자로서 너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일승 종정 큰스님 및 각 대덕스님을 모시고 불법수행에 더욱 힘을 쏟아야겠다며 뿌듯한 얼굴을 내비쳤다. 2부 축하공연시간에는 자비운동실천본부 예술단 서울예화극단 등이 여흥을 돋우어 많은 불자들이 박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는 한국근본불교조계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자리였다.